

■ ■ ■ 변호사 시험 합격기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To Sing Opera”



이 인 서

- 서울대학교 졸업 (불어불문)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대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실무연수

I. “To sing opera.”

몇 년 전 Britain'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서 South Wales에서 휴대폰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Paul Potts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한 말이다. 37살의 나이에 오페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게 된 이 오페라 가수의 이야기는,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앞두고 있던 나에게 아내가 Youtube 동영상을 보여줘서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지금도 가끔씩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때면 로스쿨 입학하기 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현재도 자신만의 오페라를 부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내년 초 제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해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을 로스쿨 2기생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먼저 시험을 쳐 본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 방법론 위주로 합격수기를 써 보고자 한다.

II. 변호사 시험과 수업의 상관관계

개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과 변호사 시험과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학점이 우수한 사람치고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진 경우를 주위에서 아직 본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공법이면 공법 등 자신 있는 분야의 과목만을 믿고 변호사 시험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서나 변호사 시험과목 외의 선택

과목에서 아무리 학점을 좋게 받는다고 한 들, 이것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도 시험에 나올만한 논점만 공부하지 않고 가급적 과목 전체를 다 보려고 노력했었다. 또한 중간·기말시험 직전 때도는 예상문제와 같은 풍문에도 그리 촉각을 기울이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할 때에도 변호사 시험 과목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이에 맞추어 시간표를 안배하려고 신경을 썼었는데, 이것이 3학년 때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므로, 현재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C학점 이하의 학점이 많다거나 과목 자체의 감이 안 잡힌다거나 한다면 분명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함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어느 한 과목에서 C이하의 학점을 받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목전에 두고 땅을 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B학점 이상은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III.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

1. 체력소모가 상당히 심했던 시험기간

이번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두고 다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간에 하루의 휴식일을 제

외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간의 시험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중간의 하루의 휴식일도 말이 휴식일이지 결코 쉴 수가 없다.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이틀간의 민사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시험 전날보다 더 긴장된다고 하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는 몇 번의 모의시험과는 달리 민사법 사례형이 제일 마지막 날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다.

나의 경우 집에서 고사장인 한양대학교까지 차로 10~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눈이 오거나 해서 차가 막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동기이자 학부 선배인 용하형 함께 한양대 앞 외국인 레지던스에 숙소를 미리 예약해 두었다. 2회 변호사 시험부터는 지방에서 응시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민한 성격이라면 선배나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 전 미리미리 시험장 근처 숙소를 예약해 둘 것을 추천한다.

첫날은 공법 시험의 선택형 문제 수준도 무난했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찍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등의 소위 '기염을 토해서'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문제는 2일째 형사법 시험을 보고 나서였다. 우선 형사법의 사례형 형소법 문제에서 불의타성 문제 하나와 기록형에서 생각보다 다소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다. 여기에서 이틀간의 시험 스트레스와 몸살 기운까지 더하여 시험을 보고 숙소에 돌아오니 심한 두통에 아예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비록 다음날이 휴식일이지만

했지만 연이를 이어지는 민사법 일정상 반드시 보고 자야할 분량이 있어서 누워 있을 수도 앉았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걱정할까봐 어지간하면 견뎌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결국 아내에게 SOS를 치고야 말았다. 퇴근한 아내가 약을 사들고 늦은 밤 압구정동에서 한양대 앞 숙소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았다면 나머지 시험을 어떻게 쳤을지 지금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하다. 신기하게도 아내가 사온 약과 보급품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니 신기하리만큼 말짱해졌다. 한 반나절 정도 공부할 시간을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휴식일 하루 동안 가급적 빠르게 민법, 상법, 민소법을 스크린하며 보냈다.

4일째 민사법 선택형은 문제수가 많아서 그런지 까다롭게 느껴졌고, 기록형 문제는 민소법 관련 논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연습해 왔던 대로 비교적 충분히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험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다음날 선택과목인 노동법을 논점위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둔 것을 일독했고, 사례형은 민소법 위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보다가 새벽 2시쯤 잠들었다.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형은 예상대로 다소 어려웠고 특히 2문은 여기서 과락자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풀 정도로 유형이 상당히 생소한 편이었다. 3시간 반의 시험 시간 동안 시간 압박에 신경 쓰면서 잘게 쪼개진 사례형 문제들의 답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논거를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채워 나

갔다. 마지막 노동법에서는 예상 문제를 몇 개 뽑아둔 것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와서 자신 있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

실제 시험기간인 1주일 동안 그동안 공부해 왔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자세로 변호사 시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선택형과 사례형이 나눠져서 치러지는 사법시험과 달리, 1주일의 기간 동안에 사법연수원의 기록형 문제까지 추가된 변호사 시험은 일단 시험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우 길다. 그래서 시험보고 와서는 사실상 다음날 시험 볼 과목들을 1독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고시들에 비해서 그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다만 성적순으로 떨어뜨리는 시험인 사법시험과 달리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은 그 합격률 등에서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해가 거듭 될 수록 누적 응시인원이 많아지는 시험 특성상 반드시 졸업과 동시에 합격한다는 자세로 임해야지 자칫 방심했다간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2. 시험 준비 교재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의 커리큘럼이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그것을 섞어놓은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사법시험의 공부방법과 교재를 기본으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 기본서로 삼은 교재와 '시험 직전'에 본 교재를 중심으로 과목별로 교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시험 직전에 본 정리서라고 해서

3학년 1학기 때부터 본 것은 아니고, 따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대신 판례와 학설 검토 등을 각각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정리를 하면서 1학년 때부터 기본서와 병행해서 계속 보았었다.

(1) 민법

기본서: 민법학강의(김형배),
민사실무II(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정리서: 민법교안 사례부분(노재호),
ESSENTIAL 민법 민총, 채권, 물건
부분(김남훈), 친족·상속법(권순한),
PRACTICE
민사문서작성론(김남훈), PRACTICE
민사요건사실론(김남훈)

(2) 상법

기본서: 상법강의(상)(정찬형),
어음·수표법(이철송)
정리서: 상법신강(김혁봉)

(3) 민소법

기본서: 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정리서: 사례민사소송법(이창한)

(4) 형법

기본서: 판례백선 형법총론(신동운),
형법요론(신호진)
정리서: 내머리속의 형법(김정철),
형사특별법 정리(사법연수원)

(5) 형소법

기본서: 신형사소송법(이재상)
정리서: 내머리속의 형소법(김정철),
학교 졸업시험 문제_전문법칙 부분

(6) 헌법

기본서: 기본강의 헌법(정희철), 헌법
중요 판례 200(정희철)

정리서: 상동

(7) 행정법

기본서: 행정법특강(홍정선)
정리서: case 행정법특강(홍정선),
신행정법 연습(홍정선)

(8) 노동법

기본서: 노동법(임종률)
정리서: 로스쿨 노동법(조용만,
김홍영)

교재 선택과 관련하여 제2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2기를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들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이다. 다들 로스쿨 수업시간에 몇몇 교수님들의 소위 신림동 강사 분들의 교재에 대한 필요 이상 폼파 발언을 몇 번 짚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아마도 고시계 1999년 12월호 채점 평에서 양창수 대법관께서 언급하신 ‘가위와 풀’론과 같은 맥락의 걱정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수료와 동시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과 이에 대한 결코 길지 않은 시험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신림동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란다.

3. 구체적인 시험 방법론

로스쿨 3년의 수학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변호사 시험을 불과 1년 남겨둔 3학년 시기는 선택형을 준비하고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시험 막바지에 부담되는 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학의 활용인 것 같다. 3학년 2학기 방학

은 방학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로스쿨에는 총 5번의 방학이 있는 셈이다. 필자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에는 법원실무수습을 마치자마자 바로 네덜란드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한 달 간 법무인턴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방학은 4번 뿐 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로스쿨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을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번 정도의 방학 기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면, 이 4번의 방학을 선택형 문제 연습을 하는 데 보낼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보통 1학년 1학기 때에는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총론, 헌법총론을 마치고 나머지 학기들도 이 정도 분량으로 진도가 나가니, 객관식 문제를 풀며 복습하기에는 2달여의 방학 기간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변호사 시험을 본다고 해서 보는 시험과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필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법시험 교재나 동영상 강의를 심분 활용했다. 수업을 마치고 신림동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방학기간에는 스터디를 짜거나 일정이 안 맞으면 혼자라도 다음 학기 과목들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예습을 마쳤다.

또한 로스쿨 수업도 대부분 논점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에도 과목별로 사례집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시험범위의 논점set와 이에 대한 판례를 통째로 외우려고 했었다. 비록 시험기간에

고통스럽더라도 3학년 때 한꺼번에 많은 분량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이러한 과정을 거쳐둘 것을 권하는 바이다.

4. 민사법 관련 공부방법

사실 변호사 시험의 분량의 절반 정도로 느껴지는 게 바로 민사법인데 이중에서도 민법은 3학년 때 잠깐 시험대비로 공부해서는 결코 정복하기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 사법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출제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풀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교재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수적이다.

나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사법연수원 교재인 민사실무II, 요건사실론 외에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산 복사집에서 민사자료집이나 민사변호사 실무 등을 구하여 풀어 보았다(일산 복사집 자료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 로스쿨 동기 강민석군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민법핵심지문총정리나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와 같은 사법시험 1차 시험용 교재들은 변호사 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3학년 때는 거의 보지 않았다. 그래도 두꺼운 조문이나 판례 교재들을 시험 전에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서 3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적어도 1~2회독 이상은 해 둘 것을 권한다. 만일 3학년 1학기가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판례나 객관식 대비를 위한 지문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객관식에 천착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판례들을 그때 그때 외워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5. 학설과 판례

이번 변호사 시험을 치루고 나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답안지에 판례를 옮기기에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법학과목 공부에 있어서 누구나 하는 고민은 과연 이 수많은 학설들을 다 외워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논점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외웠고 따로 학설은 외우지 않았고 검토는 다수의견으로 결론을 맺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인 하나의 판례에 여러 개의 학설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학설대립이 널리 알려진 몇몇 유명한 논점들을 제외하고는 판례 당 대립이 심한 학설 한 두 개씩만 외우려고 했다. 학설대립은 범위가 좁은 중간·기말고사와 달리 실제 시험장에 가면 잘 생각나지 않

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득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설 암기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IV. 마무리하며

고시계 해외실무수습기에서도 쓴 것처럼 로스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에는 주위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이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항상 믿고 응원을 보내주는 사랑하는 아내 오정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또한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손자 이호연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뒤늦게 공부한다고 걱정 끼쳐드린 점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하는 막내 동생기 안 죽게 몰래 용돈 찢러 준 큰형, 작은형에게도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